

§ 교회 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十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Ⅱ

(요 8:31-48)

이종운 원로목사

2. 37-47절 주석

37절에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만 계승하고 그가 가진 신앙은 계승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불행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37절).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실상은 아브라함의 원수인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38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두움이라서 보지 못하고 그가 속삭이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1) 39절 주석

39절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가 가졌던 믿음, 그 신앙 행동을 가진 자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39절) 이것은 명령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보다는 가풍과 신앙과 정신적인 유산을 받아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 40절 주석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40절)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도 복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대적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40절 상).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되심을 나타냅니다.

(3) 41절 주석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41절)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은 혈통이나 주장하는 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미워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4) 43절 주석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43절)

'내 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내 말'은 지금까지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내 말'은 그 말이 표시하는 교훈 혹은 교리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두 번째 말은 '로고스'입니다.

(5) 44절 주석

44절에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는 살인자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이미 살인이 시작됩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리는 자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영혼도 죽이고 육신도 죽입니다.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고, 할퀴며 깎아내리고, 남이 못된 것을 보면 재미있어 하며 좋아하고, 남이 자기보다 앞서가면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전부 살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거짓말을 함으로 큰 횡재를 한다 하더라도 버리고 참을 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자녀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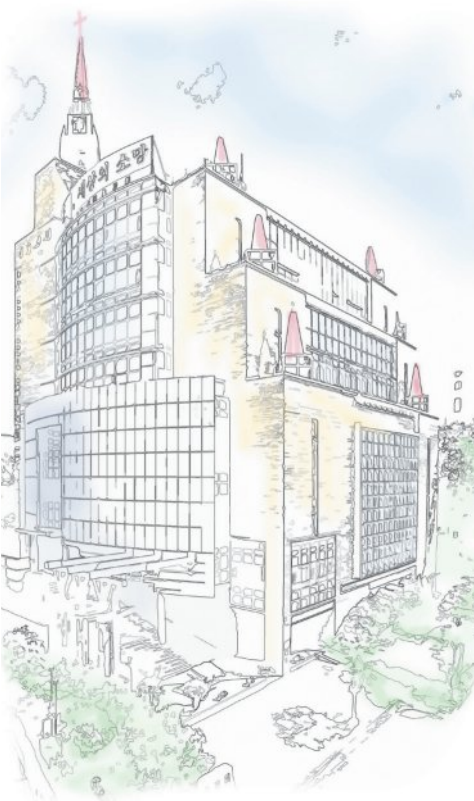
(6) 45-46절 주석

45-46절에는 마귀의 속성이 나오는데 마귀의 속성은 허위성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터인데 마귀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것을 믿고 허탄한 것을 따라갑니다.

2. 본문이 주는 교훈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가져야만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일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사 40:1-9)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배우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사야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파트 I은(1-39장)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강력한 회개의 촉구, 파트 II(40-66장)는 메시아가 오신다, 회복이 될 것이다, 소망이 생긴다,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파트 II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에게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너무나 강력해서 심령과 골수를 찢어 찢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무찌르고, 깨뜨리고, 회개시키고, 평탄케 합니다. 한편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굳은 땅, 돌짜 밭, 가시 밭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므로 먼저 마음이 열리도록 하고 열린 마음에 길을 내므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썩어 날 수 있습니다.

1.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은 외로움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외로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남은 있어도 그 만남은 공허할 뿐이고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만남입니다. 상담학에서는 만남을 Meeting과



공진수 목사
(목양교회)

Encounter로 분류합니다. Meeting은 형식적인 만남이고 Encounter는 충격적인, 충동이 있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만나는 속 깊은 만남, 근본적인 만남, 영혼이 해갈되는 따뜻한 만남을 말합니다. 욕이 고난당할 때 욕과 그의 친구들과의 만남은 Meeting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Encounter입니다. 이 짧고도 강력한 만남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은 상황을 해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믿음이 생겨야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때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웅대한 충격이나 상처는 건널 수 있도록 심리 방어기제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매일 강력한 스트레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방어막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불안, 두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에게 외로움, 불안, 두려움을 터치하는 메시지를 준다면 그 사람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2. 길을 내라!

길은 목적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성령충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충만 할 수 있는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How to), 그것이 길입니다.

2022년! 우리는 코로나 3년 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광야에 길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에 리더 길이 아닌, 제자를 양육하는 길이 아닌, 여호와의 길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체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지성적 언어, 정서적 언어, 영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지성적 언어는 논리적이고 사고력이 있고 체계적이긴 하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눈물도 주고 웃음도 줍니다. 한편 영적인 언어는 영혼을 터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서울교회 리더십들의 언어에 영의 언어를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므로 못 영혼에 위로를 주고, 회복하게 하는 좋은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 요약 : 허숙 권사(편집부)



- 오늘 크리스찬 리더십 강사 -

김성중 목사
(장신대)

주제 :
희망을 일구는 교육적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 세미나

2022년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청지기수련회를 1월 찬양예배 시간에 리더십 세미나로 진행해 왔으며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장신대 김성중 목사가 '희망을 일구는 교육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많은 은혜받기 바란다.



장경원 집사
(영어성경부 부장)

서울교회 영어예배부 (English Worship Ministry)가 영어성경부(English Bible Study)로 개편됨에 따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분들과 함께 “Coffee Break”성경 공부 모임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합니다.

Coffee break는 미국 칼빈신학교가 속한 북미주 개혁 장로교단의 사역 중 하나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곳에서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여 영어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어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또한 영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소통 능력을 배양합니다. (“Prove your faith, improve your English”)

기존 영어예배부 멤버들은 현재 영어성경부 단독방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이름, 전화번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주일 오전 10:10-10:50
- 시작 : 1월 30일(주일)
- 장소 : 802호
- 담당: 양정호 목사 (Ph.D. in Relig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 신청 : 010-3278-2048

장경원 집사(영어성경부 부장)

※ 상황(코로나 등)에 따라 필요시 사전 공지 후 단독방을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그늘지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탄 예배(미하일 목사 설교)

성탄 예배(어린이 성극)

한국어 캠프(제기차기)

할렐루야!

존경하는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손달익 담임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러시아에서 문안드립니다.

무엇보다 2년 동안이나 전 세계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이 그늘지고 흑암이 가득한 상황에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모두에게 많이 많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참고 인내하며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는 요즘 1일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 전 40,000명이 넘었었는데 좀 줄어서 현재는 약 25,000명씩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문제로 나토(NATO)서방 측과 전쟁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역은 코로나 상황이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주의하면서 현상 유지만 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 25일이 마침 토요일이라 이번 학기 한글학교를 종강하면서 한국어 캠프를 하며, 학생들을 모두 연합성탄 예배에 참석시켜 전도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종교법상 전도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한글학

교를 통하여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어 이렇게라도 전도 활동이 가능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렇게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나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5-6)는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6-8)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는 구원하실 것이요, 상 주실 이는 상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전쟁과 폭력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모두가 힘든 이 시

기에 공의로 통치할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소망의 2022년이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정상화 되도록
2.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으며, 교회와 한글학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3. 러시아와 나토(NATO)측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갈등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4.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영혼 구원까지 받도록
5. 리알리나가 2년 남은 신학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2년 마친)
6. 김영호·서향정 선교사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도록
7. 서향정 선교사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도록(청신경초종 수술 후 6개월마다 MRI검사로 추적 관리하고 있음)

러시아에서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선발

2월 10일(목)까지,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 김승록 집사)는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 신학생 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대학생, 신학생,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 극빈자, 장애인 등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

회 봉사에 모범적인 자를 선발 조건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교구 또는 교회학교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 증명서, 재학증명서를 2월 10일(목)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 27일 오후 찬양예배에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성경통독 시상품 수령 안내

1층 105호에 통독, 필사 시상품 '열린다 성경'을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성도는 명단에 권수 확인 후 사인하고 1월 말까지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독 : 1권 2독 : 2권
3독 이상 및 필사 : 3권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27(목) 여호수아회초창기도회에서 성경강해를 한다.

■ 떡 제공 : 윤성남 집사·이영희 권사 가정 (은혜 중에 장례를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이웃 앞에서 본이 되는 성도 되게 도우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2. 국내외 선교지와 농어촌 교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섬김의 본분을 다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위드코로나 시대에 세계경제와 안보를 지켜 주시고, 이 땅에 복음화된 통일을 향한 진전이 있게 하소서.

2022년을 이끌 일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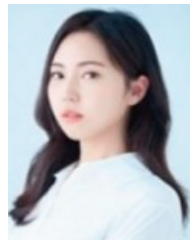


고등부 회장 유성결



중등부 회장 김은송

신임 오르가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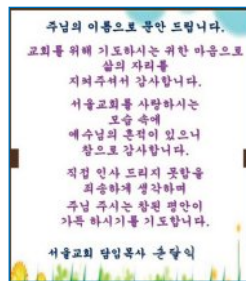
서지원
1부 예배
오르가니스트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교 석사 졸업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교 오르간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덴마크 바덴제 국제 오르간 콩쿠르 1위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브라도 국제 오르간 콩쿠르 3위

사랑의 떡국

교회는 오늘 새해를 맞아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직접 끓인 사골 육수와 떡국 떡, KF94 마스크를 담임목사님의 감사 편지와 함께 전달한다.

이번 선물은 권사회(회장 : 박미혜 권사)와 스테반회(회장 : 백도환 집사)가 협력하여 정성껏 준비하였다. 사골 육수는 권사회가 직접 만나홀의 가마솥에서 끓인 것으로 지난 나흘간 수고하여 우려낸 것이다. 믿음의 선배요 기도의 용사이신 어르신들께 무한한 사랑을 보내며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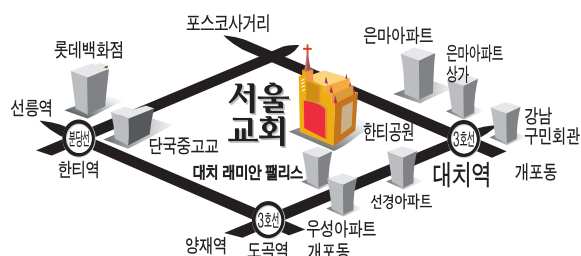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월24일	월	창 41:37-43:34		출 33-38	
1월25일	화	창 44-46		출 39-40, 레 1:1-5:13	
1월26일	수	창 47-50		레 5:14-10:20	
1월27일	목	출 1-3		레 11-15	
1월28일	금	출 4-6		레 16-22	
1월29일	토	출 7-9		레 23-27	
1월30일	주일	출 10-12		민 1-3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